



해수부,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수정안 내놔

국회토론회서 제시… 2019년 자체운영 가능

시설 장기임대·부지 분할매각
정부 선투자금 유보·분할상환
선 정부 지원, 후 기금 조성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그동안 고수해 왔던 매각 방침에서 벗어나 건물·시설은 장기임대하고 부지는 분할매각하는 수정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의 선(先) 투자

금 상환을 유보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선 정부 지원, 후 기금 조성'을 통한 재원 확보 등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수세

계박람회 사후활용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진단 및 보완대책'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성곤·주승용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문 실장은 우선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을 위해 ▲건물·시설은 장기임대하고 부지는 분할매각하는 등 민간참여 방식 개선 ▲정부 선투자금 상환계획의 유보 또는 분할상환 ▲선 정부 지원, 후 기금 조성을 통한 여수프로젝트 재원 확보 등 보완된 사후활용계획을 시행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전략을 소개했다.

문 실장은 이어 "이 같은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지원 규모를 차차 줄일 수 있

으며 오는 2019년에는 관람객 500만명에 연 90억원의 자체 수익이 가능해져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계획을 정부지원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후활용 수정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은 "관람객 규모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수익성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이어 "박람회 자산을 공익성과 수익성에 맞는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 사후활용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시도해 볼만하다"며 "구체적

으로 주재관 운영 및 여수엑스포 기념관 건립·운영 등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공익적 시설에 한해서 공공기관이 사후활용을 추진하고, 수익적 시설 또는 수익적 구역은 법·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민간업체에 자율성 및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운 남해환경연합 의장은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동서통합지대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 효율적 공익실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동서통합지대 각 지자체의 바람과 요구를 파편화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묶어 가장 합리적이고 상충적인 플랜으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비리·추문 구의원 징계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촉구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잇따른 비리와 추문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횡령 등 비리백태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지방자치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자질 없는 이들이 당 공천권으로 지방의회에 손쉽게 진출해 지방자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최근 남구의회 A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2010년부터 수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2011년에도 노인요양시설을 불법증축,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남구민들은 구의원이 아니라 범법자에게 지방자치를 맡기고 있다고 개탄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북구의회 B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음란물을 단체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구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구의회 C 의원이 배우자가 이사장인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았으나 1년여간 버티다가 서구청에서 지원비를 삭감하는 형식으로 마지못해 반환 중이다.

시민협은 “민주당은 잘못된 동료애로 비리의원을 감싸는 구태를 버리고 자질 없는 사람을 공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측은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중앙당에 있다”며 “중앙당에 문제가 된 세 의원의 징계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줄줄 새는 복지에산… 사망자에도 연금 지급

광주·전남 복지운영실태 감사

기초수급자 부정등록 10건

보일러 무자격 설치 등 적발

사망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새나가고 있다. 가뜩이나 높은 복지비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복지예산마저 '누런 돈'이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3~5월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2010년 2월 사망한 A씨에게 올해 4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 279만원을 지급했다. 광산구는 장에

인연금을 A씨가 사망한 뒤 2년 4개월 동안이나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 남구도 사망자 B씨에게 장에 수당과 장에인연금을 각각 사후 1년 4개월과 1년 8개월 동안 지급했다.

광주 서구도 사망자 C씨에게 9개월간 장에인연금 134만원과 기초노령연금 85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무안군의 경우 D씨가 2006년 2월 사망했는데도, 58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총 515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장에인 연금과 장에수당도 각각 20개월과 10개월간 지원했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E씨는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내역이 없는데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수급자와 부양의 무자 간 관계를 허위로 단절시킨 뒤 기초수급자로 등록시켜 예산을 지급

받은 사례 10여건도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최고 4843만원으로, 전체 환수 대상액만 광주 2895만원, 전남 1억3733만원에 이른다.

장성군은 지난 2011년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분권교부세 2억7500만원을 교부받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관련 부지 미확보로 분권교부세를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돼 전액 반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을 위한 집수리 사업(보일러 설치공사)도 무자격 업체가 시공에 나서는 등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나주에서는 2012년 설치된 연탄보일러 9곳 모두 무자격자가 설치했고, 담양 3곳, 곡성 2곳도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가 적발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코레일 광주·전남 노조원 104명 직위해제

파업 사흘째 대립 격화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참가 노동조합원 1585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첫날 노조 간부 19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4356명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둘째 날 1585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파업참가로 직위가 해제된 노조원은 5941명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직위해제된 조합원은 모두 104명이며, 21명이 고발조치됐다.

코레일은 강력한 조치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이날 기준 광주·전남 화물열차 수송이 사흘째 70% 가까이 감

축 운행되면서 물류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이 노조파업으로 화물열차운행을 평시 259회에서 91회로 3일 연속 35%대로 운행을 줄였기 때문이다. 노조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한 데 대해 법원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임인행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에 대해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2016년까지 12개 국제행사 유치

전남도는 11일 "지역 특성을 살린 국제행사나 기구의 발굴·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까지 12개의 국제행사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4년 6개, 2015년 5개, 2016년 1개 등이다.

내년에는 해조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4.11~5.11)가 완도군 일원에서 열린다. 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10차 총회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한일포럼, 세계해설가대회, 농업, 식량문제 등을 다룬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 22회 한일해협 연

안시도헌 수산교류회의도 개최된다.

2015년에는 담양대나무엑스포가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하며, 지난해 성공 개최 평가를 받은 국제농업박람회 새 모습으로 선보인다. 세계대나무총회, 국제전북심포지엄, NEAR 분과회의 등도 열린다.

2016년에는 세계친환경상품디자인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제행사 개최가 열악한 지자체의 활로로 판단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민대상 제안공모에 나서는 등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건립 성금 모금 합니다

함께 해요, '광주 정신'을 아시아로

광주일보사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성금모금을 펼칩니다. 오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캄푹스퓨투(州)에 1호 '광주 진료소'가 문을 열게 되며, 향후 미얀마와 필리핀 등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이주여성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2·3호 '광주 진료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광주 진료소' 성금 모금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예금계좌=광주은행 013-107-337079 (예금주: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ARS 성금 모금=060-700-0775
◇문의 전화=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2-222-3566)
(사)희망나무 사무국 (062-675-7118)

光州日報社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도대체 스피치를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춘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혀 문외하사님 지대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킴은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동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현면초로 246번길 3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임대

(병·의원)

2층 : 양 · 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 ·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010-3690-7790